

도서관 정보



도서발굴단 추천도서

우울감이 높아진 코로나우울 시대의 '소확행'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뿐만 아니라 작은 소비로 큰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소비 트렌드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소소한 지출로 어떤 행복을 경험했는지 책 속 문장과 함께 떠올려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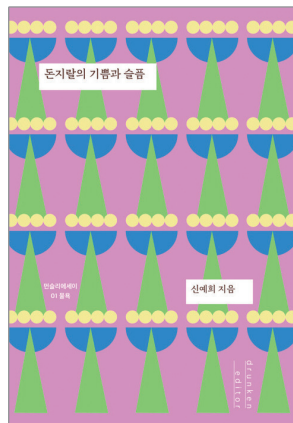
글 고양시도서관

도서발굴단이란?

책과 문장을 수집하는 고양시 사서들의 네이버 포스트. 포스팅은 시기별 이슈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관심사가 반영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https://m.post.naver.com/my.nhn?memberNo=22522629>)

#1 지극히합당한 소비_돈지랄의 기쁨과 슬픔

저자 신예희 출판사 드렁큰타이거



신간 도서를 둘러보다 제목을 발견하고선 이 책은 읽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작가는 얼마나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기에 '돈지랄'이라는 제목을 단 것인지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펼쳐보았다. 한 줄 한 줄 읽다 보니 분명히 자신을 위한 너무나 합리적인 소비들이었다. 본인의 행복을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었으며, 그 어떤 소비도 허투루 이루어진 것이 없었다. 그의 시간을, 체력을, 기분을 위한 합당한 돈지랄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책속한줄

“예쁘다는 이유로 사고 싶은 물건들, 누군가는 이런 것을 두고 ‘예쁜 쓰레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보다는 더 좋은 대우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고마운 물건인데요.”

#2 소비를 향한 욕망_쇼룸

저자 김의경 출판사 민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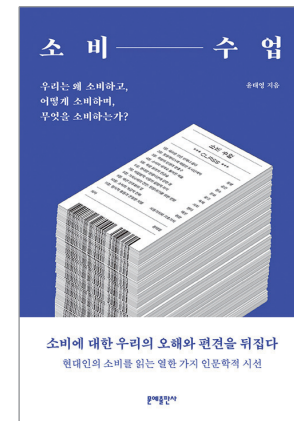
5년간 성실히 쓰던 가계부를 집어치웠다. 나의 소비와 재무상태는 가계부와 상관없이 제자리였으니까. 생활이 구질구질하다고 느껴질 무렵, 장바구니에는 내 취향과 상관없는 물건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건 뭐였을까. 물끄러미 바라보다 결국 아무것도 사지 못한 채 장바구니를 비워낸다.

책속한줄

“다이소는 종종 나를 멍해지게 만들었다. 분명히 뭔가 필요해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나올 때는 그 무언가는 강그리 잊어버리고 다른 물건이 손에 들려있곤 했다.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잠시라도 기분이 좋으면, 쇼핑을 하면서 골치 아픈 것들을 머릿속에서 몰아낼 수 있다면 1,000원, 2,000원 정도의 돈은 전혀 아깝지 않았다.”

#3 소비의 메커니즘_소비 수업

저자 윤태영 출판사 문예출판사



우리의 모든 생활환경에는 소비가 녹아있다. 저자는 그런 소비에 대해 경제·역사·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었다.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이전에 본질적으로 소비가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진화하였는지 알 수 있다. 전혀 어렵지 않고 한 챕터 챕터가 가볍고 재미있는 교양서적이다. 다양한 사례와 함께 소비와 관련된 광고, 문화, 취향, 패션 등을 함께 이해해보는 알찬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책속한줄

“비합법적인 사랑의 합법적인 자식인 사치가 자본주의를 낳은 것이다.”

#4 소비 주체로 떠오른 90년대생들의 이야기_90년대생 소비 트렌드 2020

저자 곽나래 출판사 더퀘스트



저자는 'SSG.COM'의 서비스 기획자다. Z세대로 불리는 90년대생으로 수입의 대부분을 자신의 소확행을 위해 지출한다. 옷 자체보다는 이미지를 사는 패션 분야, 자기관리를 위한 스포츠, 반려동물에 대한 소비가 주를 이룬다. 그 외에도 여행, 식품, 퇴근 후의 삶에 대한 소비까지 90년대 생들의 생각과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책속한줄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인 90년대생은 소비에 대해 크게 두 가지의 기본 마인드가 있다. 첫째, 아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아낀다. 둘째, 그럼에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는 과감히 투자한다.”